

한국어 ‘-어(서)’ 구문1)

성 태 수

(남서울대학교)

Sung, Tae-Soo. 2000. On Korean ‘-ese’ Construction. *Linguistics* 8-1, 59-85. Korean morpheme ‘-e’ can be substituted for ‘-ese’, in which case ‘-ese’ carries three kinds of meanings: causal, time-restricted, and motivational. More precisely to consider the three relations above, on the one hand, we can find that they have a lexical meaning of ‘possessing’ in common. On the other, ‘-ese’ is assumed to be utilized as a kind of functional category, in that it stands for ‘resultative meaning’. The ‘-ese’ constructions include two events in a sentence, of which the first event accounts for a cause and the second represents its effect to the first event. Inserted to the end of the first clause representing a cause, ‘-ese’ plays a role of connecting the first and the second clause representing an effect. ‘-ese’ that is [+lexical] as well as [+functional] is an affix, combined with the lower lexical verb. This category will be called FP. The [+L, +F] category has a strong morphological property to be checked off by means of merging of ‘-ese’ to the position of F. However, comparing Korean ‘-ese’ constructions and Chinese ‘-de’ constructions, we can find out a discrepancy that the identification of pro in the lower clause is under Tang (1998)’s GCT, in Chinese ‘-de’ constructions, but not in Korean ‘-ese’ constructions. The reason stems from a parameter that Korean ‘-ese’ constructions, but not Chinese ‘-de’ constructions, has an AgrP, immediately dominated by FP. (Namseoul University)

1. 서론

1.1 한국어 ‘-어(서)’의 쓰임

이 논문은 최소주의 가정 하에서 한국어의 ‘-어(서)’구문을 고찰할 것이

1) 이 연구는 1999년도 남서울대학교 자체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 논문의 개요는 2000년 5월13일 호원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언어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논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기되는 모든 잘못은 필자에게 있다.

다. 우선 결과구문에 대한 Simpson (1983)의 일반화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예문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어 '-어(서)'구문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할 것이며, Tang (1997)의 가정을 기초로 하여 한국어의 '-어(서)'구문의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이 소고에서 언급되는 한국어의 결과구문이란 '-어(서)'구문을 편의상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또한 '-어(서)'구문 중에서도 '-어'가 '-어서'와 자유롭게 교체되는 경우로 우리의 고찰 범위를 한정시킬 것이다. 아래의 예문 (1)과 (2)를 비교해 보면, 예문 (1)은 어휘동사와 보조동사가 '-어'로 연결된 경우이며, 예문 (2)는 어휘동사와 어휘동사가 '-어'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진 경우로 '-어서'와 자유롭게 교체되어질 수 있다. 바로 (2)의 예문들이 이 소고에서 다루어질 '-어(서)'구문의 구체적인 예가 된다.²⁾

- (1) a. 꽃이 피어났다.
- b. 우리는 산으로 올라갔다.
- (2) a. 철수는 쥐를 때려 죽였다.
- b. 의자가 닦여 깨끗해 졌다.

예문 (1)의 두 동사는 분리시킬 수 없는 복합 관계를 이루며, 두 요소 사이에 '-서'나 그 밖의 형태소를 개입시킬 수 없다. 반면에 예문 (2)의 두 동사 사이에는 '-서'나 그 밖의 형태소가 개입되어 두 동사를 분리시킬 수 있다.

- (1') a. *꽃이 피어서 났다.
- b. *우리는 산으로 올라서 갔다.
- (2') a. 철수는 쥐를 때려서 죽였다.

2) (1)과 (2)의 경우와 구분되는 제 3의 유형의 복합동사구문이 있다. 이 경우는 단일동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분리할 경우는 (ib)와 같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 (i) a.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빌려 주었다..
- b.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빌렸다. +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 c.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빌려 빨리 주었다.
- d.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빌려 안 주었다.

i와 같은 복합동사구문에서는 (ic)와 같이 후행술어만을 수식하는 부사의 삽입과, 또 (id)와 같은 후행술어만의 부정이 불가능하며, 이는 어떤 성분도 후행술어에만 독립적으로 관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1)의 '어휘동사+보조동사'구문과 (i)의 복합동사구문에서는 '-어서'가 '-어'를 대체할 수 없다.

b. 의자가 닦여서 깨끗해 졌다.

한국어의 문장구조상 예문 (2a)의 선행술어는 '때리다'이고, 후행술어는 '죽이다'이다. 또, 예문 (2a)에서 선행동사 '때리다'의 목적어는 '쥐'이며 '수동자' 의미역을 가지며, 이는 또한 후행술어 '죽이다'의 수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어 '-어(서)'결과구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3) a. 하나의 문장에 두 개의 사건 (event)이 포함되어져 있다.
- b. 상태와 행위유형의 선행절이 있고, 이는 상태의 변화 내지는 또 다른 행위유형의 후행절을 지배한다.
- c. '-어(서)'는 인과적, 계기적, 시간 한정적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이들은 '가지고'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d. 선행절의 사건에 포함된 한 논항이 후행절에서 영향을 받는 수동자 (patient) 혹은 대상(theme)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사건에 포함된 논항들이 전혀 일치되는 않는 경우도 있다.

우선 영어 결과구문에 대한 일반화와 관련해 Simpson (1983)의 견해를 살펴보자. Simpson (1983)에 따르면, 영어결과구문의 결과술어는 선행술어 목적어의 술어가 되고, 이 결과술어의 주어가 선행동사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동자'가 된다. 아래 예문 (4-6)의 영어 결과구문들은 Simpson의 일반화를 만족시킨다.

- (4) John painted the car red.
- (5) The ice froze solid.
- (6) John laughed himself sick.
- (7) *John laughed sick.

예문 (3)에서 결과술어인 'red'는 선행술어 'paint'의 목적어 'the car'의 술어이며, 예문 (4)에서 선행술어 'freeze'의 심층목적어 'the ice'는 술어로서 'solid'를 갖는다. 예문 (5)에서 결과술어 'sick'가 비능격동사 'laugh'의 주어의 술어가 될 수 없으므로 재귀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거짓목적어(fake object)로 삽입되고, 결과술어는 이 재귀대명사의 술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문 (6)은 선행술어의 목적어이며 결과술어의 주어인 재귀대명사가 현시적으로 (overtly) 나타나지 않으므로 비문이 된다.

하지만 Simpson의 주장과 다르게 예문 (2a)에서 '쥐'는 선행술어의 목적어이나, 결과술어인 '때리다'가 '쥐'와 술어 관계를 갖기보다는 '쥐'를 목적으로 갖는 타동사이다. 반면, (2b)는 비대격 혹은 수동동사 '깨끗해지다'를 상위술어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층주어 '의자'는 '깨끗이 하다'의 심층목적어이며, 결과술어 역시 이 심층목적어의 술어가 되므로 Simpson(1983)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하다. 또한 아래 예문 (8-9)도 Simpson의 일반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국어 결과구문들이다.

(8) 철수가 순이를 때려 슬퍼졌다.

(9) 철수가 뛰여 지쳤다.

예문 (8)과 (9)은 정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술어인 '슬퍼지다'와 '지치다'는 각각 선행술어 '때리다'와 '뛰다'의 목적어가 아닌 주어 '철수'와 술어관계를 이룬다. 우리는 1.2에서 Tang (1997)의 중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Tang (1997)의 가정이 한국어의 '-어(서)'구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³⁾ 2.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event

3) Kim (1993)은 한국어의 결과구문을 의미론적 일반화를 통해 설명하려 하고 있다. 즉 그는 한국어의 결과구문들이 통사론적으로 일반화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구조를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Kim이 (i)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i) a. 그는 차를 노랗게 색칠했다.

b. 그는 목이 쉬게 외쳤다.

Kim은 타동사가 상위술어인 (ia)와 비능격 자동사가 상위술어인 (ib)가 각각 다른 구조를 지닌다는 증거로 각 구문에 뒤섞기(scrambling)가 적용될 경우가 문법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ii) a. 차를 그는 노랗게 색칠했다.

b. *목이 그는 쉬게 외쳤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i)의 두 예문이 결과구문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다. 즉 (ia)에서 '노랗게'는 방법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으로'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즉, 노란 색으로), 다른 방법부사구를 포함하는 타동사구문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예, 그는 물을 빨리 마셨다.) 또한 (ib)는 실제 그가 너무 소리를 외쳐서 목이 쉰 결과를 의미한다고 보다는 오히려 '목이 쉬게'란 심하게 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구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어의 '-게'가 문법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결국 한국어의 결과구문에서 나타내는 술어와 술어는 '-어'의 연결로 실현되어야 한다. 더구나 (i)의 구문들이 현재시제로 바뀌어질 경우 결과구문이 갖는 성격, 즉 선행절에 의해 야기된 사건을 통해 반드시 후행절의 사건이 야기되어야 한다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iii) a. 그는 차를 노랗게 색칠한다.

structure가 일치함을 보일 것이며, 2.2에서는 한국어 '-어' 혹은 '-어(서)'가 결과상을 나타내는 기능범주의 핵이며, 이는 또한 '-가지고'란 의미를 지님으로써 [+L,+F] 특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2.3에서는 '-어(서)'구문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이 구문이 일렬동사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이 아닌 상위술어가 내포문을 취하는 복문의 형태임을 주장하고, 이 복문의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 pro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중국어의 결과구문과 한국어의 '-어(서)'구문은 동일한 원리로 설명될 수 있으나, 내포절의 pro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의 '-어(서)'구문이 내포절에 Agr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할 것이다. 4장은 이 글의 결론부분이다.

1.2 Tang (1997)의 중국어 결과구문

Tang(1997)의 중국어 결과구문에 대한 주장을 알아보고 그가 제시한 구조를 한국어 결과구문의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우선 영어는 Simpson(1983)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그의 일반화 제약조건을 준수하는 반면에 중국어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 Tang(1997)은 Simpson의 일반화 제약 조건에 대한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매개변향이론을 도입한다. 즉 영어의 결과구문에서 선행술어는 어떤 기능 범주를 하위 범주화하지 않으나, 반면 중국어의 결과구문의 선행술어는 어떤 기능범주를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Tang은 중국어 결과구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중국어의 결과구문은 결과술어가 항상 목적어와 술부판계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래의 예문 (10)를 통해 발견된다.

(10) a. Zhangsan ba ma qi-de hen lei.

BA horse ride-Res very tired

(i) 'Zhangsan rode the horse and got it tired.'

(ii) *'Zhangsan rode the horse and he got tired.'

b. 그는 목이 쉬게 외친다.

(iii)의 경우는 선행된 사건의 결과로 후행절의 사건이 야기되어졌다기 보다는 선행사건에 방법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더해준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일본어에 관한 이와 비슷한 논의는 Washio (1997)에서 시도되고 있다.

- b. Zhangsan tia-de tiao-le qi-lai.
 frighten-Res jump-Perf up-come
 'Zhangsan was so frightened that he jumped up.'
- c. Zhangsan ku-de hen lei.
 cry-Res very tired
 'Zhangsan cried and became very tired.'

예문 (10)에서 선행술어로, (10a)는 타동사를, (10b)는 비대격동사를, (10c)는 비능격동사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10a)에서 'ma' (말)는 선행동사의 목적어이며, 결과술어 'hen lei' (피곤하다)의 주어이다. (10b)에서 'Zhangsan'은 비대격 선행술어인 'tia' (놀래다)의 심층목적어이며, 이는 또한 결과술어인 'tiao-le qi-lai' (펄쩍뛰다)의 주어이다. 하지만 (10c)는 (10a-b)와 다르게 결과술어인 'hen lei' (very tired)는 목적어가 아닌 주어 'Zhangsan'과 술부관계를 갖는다. 이는 Simpson(1983)의 일반화에 대한 반례가 된다.

Tang은 최소주의 이론 내에서 영어와 중국어의 결과구문의 차이를 FP라는 기능범주의 유무에 관한 매개변향적인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11) 선행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중국어)
 [vP DP_{1j} [v' v [VP DP_{2i} [V' V [FP F [XP proi X]]]]]]⁴⁾
- (12) 선행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중국어)
 [vP DP_{1i} [v' v [VP V [FP F [XP proi X]]]]]

예문 (11)과 (12)은 주어와 목적어를 각각 vP와 VP의 SPEC자리에 위치시키는 VP-Shell구조를 가정하고 있으며, X는 결과술어로 공대명사와 함께 결과술부 XP를 형성한다. 이 XP는 기능범주 F의 보문(complement)이다.

Tang (1998)의 주장에 따르면, F는 일종의 기능범주로 그 자리에 결과보문사 'de'가 위치하며, (Huang (1982); C.-C. J. Tang (1990); Sybesma (1992)) 이 F가 하위절의 시간적 정점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4) Huang (1984)은 PRO/pro가 GTC를 준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GTC하에 서는 PRO/pro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

또한 이는 형태적으로 강한 상자질(aspectual features)을 가지므로 현시적으로 점점 받아야 한다. (Y.-H. A. Li (1990)) 혹은 C.-C. Tang (1990)) 이는 merge에 의해 점검을 받는데 이 F의 강 자질을 점검해 주기 위해 일종의 접사인 'de'가 그 자리에 삽입된다. 이는 접사이므로 후행술어와 결합하여 '동사+de'를 형성하고, 이는 함께 경동사인 v자리로 이동한다.⁵⁾

예문 (11)과 (12)에서 'de'는 선행술어로 야기된 사건이 결과술어로 야기되는 결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얼다'의 뜻을 지니며 (Yue (1984)), 이런 점에서 기능범주 F는 어휘적인 특성을 지님으로서 [+F, +L]이라고 주장한다. (Fukui (1995)) 또한, Tang은 모든 공대명사가 '일반화된 통제이론' (the Generalized Control Theory: 지금부터 GCT로 쓰겠음)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GCT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공대명사는 통제영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요소에 의해 통제되어야함을 의미한다.

(13) An empty pronominal be controlled in its control domain (if it has one) by the closest nominal element.

(14) α is the control domain for β iff it is the minimal category that satisfies both

(a) α is the lowest S or NP that contains

(i) β or (ii) the minimal maximal category containing β ; and

(b) α contains a SUBJECT accessible to β .

예문 (11)과 (12)에서 FP는 중국어가 주어/동사 일치자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정할 때, 그 안에 accessible SUBJECT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통제영역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제영역은 상위절이 된다. 예문 (11)에서 pro는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최소명사구인 목적어에 의해, 예문 (12)에서 pro는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최소명사구인 주어에 의해 통제된다. 결국 FP 없는 영어에서는 결과술어의 주어로 pro가 올 수 없으며, 예문 (3)-(6)은 아래의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15) [vP DP1 [v' v [VP V [XP DP2 X]]]]

5) 상위동사가 타동사일 경우는 경동사 자리에 형태소 'ba'가 음성적으로 생성되므로 '하위동사+de'의 형태가 이 자리로 이동해 올 수 없다. Tang (1997: ft4)를 재인용하면 이 'ba'가 중국어의 경동사의 음성적 실현이라 가정한다. (Huang (1991, 1992); Gu (1992); and Sybesma (1992))

구조 (15)에서 DP2는 선행술어의 목적어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항상 현시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중국어의 결과구문에서 Tang이 제시하고 있는 FP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며, 또한 한국어에서 GCT가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2. 한국어 '-어(서)'구문의 구조제안

2.1 '-어(서)'구문의 구조

Tang(1997)이 제시한 중국어의 결과구문의 구조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한국어 결과구문의 구조를 추론해 보자. 한국어가 head-final 언어라는 것을 상정할 때, 한국어의 '-어(서)'구문은 결과술어가 타동사일 때는 (16)의 구조를 보이고, 결과술어가 비능격 자동사일 때는 (17)의 구조를 보인다..

(16) [vP subj1 [v' [VP obj2 [V'[FP [XP pro1 X] F] V]] v]]

(17) [vP subj1 [v' [VP [FP [XP pro1 X] F] V] v]]

구조 (16)과 (17)은 한국어 결과구문의 결과술어가 중국어 결과구문에서와 동일하게 기능범주 FP를 선택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장에서 살펴본 한국어 결과구문들은 선행술어가 항상 주어와 술부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한국어의 결과구문이 기능범주를 포함하고 또 하위절의 주어자리에 pro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Tang의 가정에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선 한국어 '-어(서)'구문이 중국어의 결과구문과 동일하게 FP라는 결과내포절을 포함하고, 그 내포절의 주어자리에 pro가 나타나지만, 반면 목적어 자리에도 pro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⁶⁾ pro에 대해서는

6) Huang (1984)은 언어마다 PRO/pro를 선택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나 불어는 비시제절 주어자리에 PRO를 허용하며, 이탈리아나 스페인어는 시제절의 주어자리에 pro를 허용된다. 이들 언어에서 PRO/pro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시제절이든 비시제절이든, 또 주어자리든 목적어자리든 PRO/pro가 자유롭게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Huang (1984)은 목적어자리의 공범주를 변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Choo (1993)와 Moon (1989)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어에서는 pro가 주어자리와 목적어 자리에 실현된다고 가정할 것이다.

3.2에서 다시 논의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Huang(1989)의 GCT를 한국어에 적용시키는 방법과 Tang이 제시한 기능범주 FP의 구체적인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2.2 FP의 특질

우선 FP의 특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FP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한국어의 형태소 '-어(서)'는 선행절이 나타내는 계기, 원인, 한시적 연결 등의 사건에 첨가되어 후행절에 그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 소고는 실제로 한국어의 '-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통사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래 (18), (19), (20)의 문장들에 포함된 '-어(서)'가 각각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문들이 하나의 기저구조를 공유한다면 그 구문들이 공통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시켜주는 '-어(서)'를 연결체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소고에서 연결체 '-어(서)'의 위치를 F라 가정하고, 이 F는 자신의 최대범주 FP를 지니는 일종의 결과상을 나타내는 기능범주로 가정할 것이다. 또 FP는 공대명사를 주어로 갖는다.

서정수 (1992)는 '-어(서)'의 쓰임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아래 (18)의 예는 '원인적 연결', (19)는 '한시적 연결', (20)을 '계기한정적 연결'구조를 지니고 있다. 아래 문장은 앞뒤 절이 '원인적 연결'구성을 보이며 인과관계로 해석된다.

- (18) a.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b. 돈이 많아(서) 탈이다.
 c. 바람의 불어(서) 나무가 넘어졌다.

위 예문들은 원인이나 이유로 해석되며, 선행술어가 형용사이든 동사이든 [+상대]의 자질을 보인다. 그외에도 이 예문들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개별적인 주어를 가진다. 이 경우는 우리의 3장에서 논의할 것이며, 이 예문들 역시 '-어(서)'구문의 일반화 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예들은 서정수(1992)가 '한시적 연결'이라 정의하는 경우들이다.

- (19) a. 그들은 날이 밝아(서) 떠났다.

- b. 그는 젊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 c. 너는 죽어(서) 천당에 갈거야.

(19)의 예문들도 (18)의 예문들과 동일하게 선행술어가 [+상태]의 자질을 공유하나, 다른 점은 선행술어의 '-어(서)'가 '-할 때'와 같은 시간과 관련된 서술을 한다. 아래 예문들은 '-어(서)'의 선행술어는 '계기한정적'인 경우를 나타내며 [-상태] 곧 동작성과 과정성을 지니고, 결과술어 역시 동작성 또는 과정성을 지니게 된다.

- (20) a. 그는 책을 사(서) 읽었다.
- b. 그들은 걸어(서) 학교로 갔다.
- c. 그는 군인이 되어(서) 출세했다.

이런 분류와 아울러 서정수 (1992)는 예문 (18)-(20)의 '-어(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로 대치될 수 있음을 포착하고 있다. 즉 이는 '-어(서)'가 '갖고'와 같은 어휘적 의미를 가짐을 뜻한다. 예문 (18-20)의 (a)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도 전혀 의미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 (18a') 날씨가 추워 갖고 기분이 좋다.
- (19a') 그들은 날이 밝아 갖고 떠났다.
- (20a') 그는 책을 사 갖고 읽었다.

이런 대체현상을 통해 서정수 (1992)는 '-어(서)'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가짐'이라고 주장한다.⁷⁾ 곧 '-어(서)'는 원인적, 한시적 및 계기한정적 쓰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각 환경에서 나타내는 의미 기능은 '가짐'이라는 기본 의미로 포괄하여 설명된다. 이 '가짐'이라는 기본 의미가 일종의 상보적 분포 관계에 따라 각각의 환경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서정수의 주장을 따를 때, '-어'는 결과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L,+F]의 자질을 공유하고, 이는 형태론적인 강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시적으로 merge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어(서)'가 F의 점검영역에 삼입이 됨으로 실현된다. 이 F는 형태론적으로 접사이므로 이는 하위술어와 결

7) 최현배 (1961), 성기철 (1972) 참조

합되며, 다시 [동사+어(서)+동사]의 결합체는 경동사 자리에 이동해 간다. '-어'는 한국어에서 결과구문 뿐만 아니라 '-어 있'의 형태로 결과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로 사용되기도 한다.⁸⁾ 영어결과구문 (4-6)과 다르게 한국어는 '-어(서)'가 선행하는 원인절을 후행하는 결과절에 연결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영어에서 불가능한 선행절과 후행절에 [+상태]자질을 가진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한국어에서는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 결과구문을 일렬동사구문으로 분석한 이숙희(1996), 강선영(1993)의 '-어'구문에 대한 분석을 살펴볼 것이다.

2.3 일렬동사구문 분석

이숙희(1996)와 강선영(1993)은 '-어'구문이 일렬동사구문의 특징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어'구문은 단문이며, 이는 복문인 '-어(서)'구문과 다른 부류의 구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고에서 '-어'구문이 '어서'구문과 동일하게 복문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숙희(1996)는 예문 (21a)와 (22a)를 일렬동사구문으로 분석함으로써 (21b)와 (22b)와 같은 구조를 각각 제시한다. (21)은 한국어 결과구문이고, (22)는 Yorba어 결과구문이다.

(21) a. 철수가 쥐를 때려 죽였다.

b. [VP2 철수가 [V2' [VP1 쥐를 때리-어] [V2 죽였다]]

(22) a. Fimi pushes Akin fall.

b. [VP1 Femi [V1' push [VP2 Akin [V2 fall]]]]

일렬동사구문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문상의 특징은 단문을 전제로 한 분석이므로 (21)과 (22)와 같은 VP-shell구조를 지니며, 또한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8) (i) 산이 높이 솟아 있다.

(ii) 개가 죽어 있다.

(iii) 그 사람이 살아 있다.

(iv) 그 학생이 집에 가 있다.

위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사를 가진다는 공통점 이외에 어떤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가 보다는 상태의 존재, 즉 어떤 움직임이 실행되어 종결에 이르는 자연스런 추이를 보여준다.

- (23) a. 일렬동사구문은 오직 하나의 통사적 주어만을 갖는다. (Jansen, et al (1971))
- b. 일렬동사구문은 현시적인 등위/종속접속사없이 두 개 이상의 어휘동사를 포함한다. (Jansen, et al (1971); Bradshaw (1982))
- c. 일렬동사구문에서 독립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두 동사는 동일한 시제와 상을 갖는다. (Sebba (1987); Seuren (1990))
- d. 일렬동사구문의 동사군은 공통의 목적어를 가진다. (Baker (1989))

하지만 '-어(서)'구문은 위에 제시된 특징들을 준수하지 않는다. (23a)와 다르게 한국어의 '-어(서)'구문의 두 동사는 (18a)와 같이 각각 통사적으로 다른 주어를 취할 수 있다. (23b)에서 일렬동사구문은 두 개 이상의 어휘동사들이 연결된다는 가정하에 일렬동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한국어의 '어휘동사+어+보조동사'구문 역시 일렬동사구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보조동사들이 (24)과 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가능하다.

(24) 철수는 책을 읽어 보았다. (이숙희 1994:449)

실제로 (24)에서 '보다'를 어휘동사로 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보다'는 선행하는 주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실제로 겪음이라는 보조적 의미를 지니며, 독립적으로 의미역을 할당할 수 없다.⁹⁾ 더구나 (23b)와 관련해 일렬동사구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어(서)'가 종속/등위접속사가 아니라는 가정을 통해 한국어에 일렬구문의 존재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어'는 자신의 독립적인 어휘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¹⁰⁾ (23c)는 일렬동사구문에 포함된 두 동사가 하나의 시제와 하나의 상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어의 '-어(서)'구문 뿐만 아니라 '-게', '-도록', '-한', '-지', '-고'등의 구문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예외적으로 (23c)를

9) 보조동사에 대한 논의는 이상복 (1986), 이선웅 (1995)등을 참고하시오.

10) 이숙희 (1994)와 강선영(1993)은 이 '-어'를 한국어에서 두 개의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어떠한 상, 시제, 일치, 범등 어떤 의미도 지시하지 않는 dummy 형태소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가정은 한국어의 동사는 표층에서 항상 어떤 접사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 bound morpheme으로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Kang (1993)의 주장에 바탕을 둔다.

'-어(서)'구문만의 특질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 보문사들이 갖는 일반성의 포착을 어렵게 만들뿐이다. (23d)는 실제로 한국어 '-어(서)'구문의 특질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아래 예문에서 '다리'는 후행술어 '빠다'의 목적어일 뿐 선행술어 '넘어지다'의 목적어는 아니다.

(25) 철수는 넘어져서 다리를 빼었다.

두 동사가 논항을 공유하는 경우와 논항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어 '-어(서)'구문에서는 다양하게 실현되며,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모든 '어휘동사+어(서)+어휘동사'구문은 한 문장에 두 개의 사건을 포함하며, 선행하는 사건의 결과는 후행하는 사건으로 실현된다. 또한 '-어(서)'는 '-가지고'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강자질을 가진 F를 점검하기 위해 그 자리에 merge에 의해 삽입되고, 접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선행술어에 결합된다.

3. 매개변향적 접근

3.1 의미론적 고찰

우리는 한국어의 '-어(서)'가 '어휘동사+어(서)+어휘동사'구문으로 실현될 경우, '-어(서)'는 FP의 핵인 F자리에 삽입되며, 이는 어휘범주의 특성과 기능범주의 특성을 함께 지닌 범주임을 알아보았다. 이장에서는 먼저 '-어(서)'로 연결되는 두 동사의 의미역구조와 관련하여 각각의 논항에 의미역이 어떻게 할당되는지를 살펴보고, 영어나 중국어의 결과구문과 비교해 한국어 '-어(서)'구문에서 의미역할당이 훨씬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언어간의 차이는 F범주의 유무나 또는 이 F범주가 나타나는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매개변향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강현화 (1998)는 두 문장이 접속될 때 동일한 선행성분의 생략이나 성분간의 자리바꿈에 의하여 두 동사가 나란히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연결은 두 술어가 인접하여 우연히 나란히 배열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현화는 두 어휘동사가 연속해 나타날 때, 그 둘 사이에 논항을 공유하는 경우를 형태적으로 '동사복합구성'을 이루며, 의미역 할당면에서는 통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연속동사구성이 일렬동사구

문과 같은 별도의 범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들은 강현화 (1998)의 것들을 현재의 구조에 맞추어 설명한 것이다. 첫째, 두 개의 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공유한 경우이다.

(26) 철수는 쥐를 [pro1 pro2 때려] 죽였다.
둘째, 두 개의 술어가 주어만을 공유하는 경우이다.

(27) 수 많은 사람들i 이 [proi 얼어] 죽었다.

셋째, 두 개의 술어가 주어는 공유하나 목적어는 공유 않는 경우이다. (28a)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간의 연결이며, (28b)에서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연결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28c)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연결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8) a. 그i 는 [proi 경주 박물관j 설계k 를 맡아] proj 완성했다].
b. 그i 는 [proi 매를 맞아] 죽었다.
c. 그i 는 [proi 넘어져] 다리를 빼었다.

하지만 위 세 가지의 경우와 다르게 아래 (29)의 '-어(서)'구문은 두 개의 술어가 각각 어떤 요소도 공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절간의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파악된다. 이는 실제로 한국어의 다양한 '-어(서)'구문에 두 술어가 어떤 요소를 공유하는 경우와 두 술어가 어떤 요소도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는 영어와 다르게 두 술어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연결 형태소들이 존재한다. '-아/어', '-지', '-게', '-고'등이 바로 두 술어를 연결해 주는 연결 형태소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형태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하겠다.

(29) 천장이 너무 높아 [우리는 그 곳에 닿을 수 없다].

하지만 (29)와 같은 '-어(서)'구문은 두 술어의 주어가 다르다는 점에서 인과 관계 접속어미로 분류하는 주장이 있다. 만약 그들의 주장과 같이 이들이 접속어미이고 유사한 의미의 '-니까'와 같은 원인절과 결과절을 연결하

는 접속어미로 대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

(30) 천장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는 그 곳에 닿을 수 없다].

'-어(서)'와 '-니까'는 두 술어간의 동일주어관계가 수의적이며, 선행절과 후행절에 [+상태] 자질을 가진 술어가 위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하지만 윤평현 (1989)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두 형태소는 문장종결법과 시제와 상어미가 선행술어와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31) a. 바람이 불{어서, 니까} 배가 떨어졌다.

b. 배가 아프{*아서, 니까} 병원에 가자.

(31a)와 같이 각각 서술문과 의문문에서는 '-어(서)'와 '-니까' 모두가 자연스럽다. 반면 (31b)와 같은 각각 명령문, 청유문에서는 '-니까'만이 쓰일 수 있고, '-어(서)'는 쓰일 수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힐 수 없지만 (31b)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원인/결과관계보다는 이유/귀결관계를 가지기 때문인 것 같다. 시간 부사구 삽입할 경우 (31a)는 자연스러운 원인/결과상의 의미가 도출되나, (31b)의 경우는 비문이 된다.

(32) a. 바람이 조금 전에 불{어서, 니까} 배가 떨어졌다.

b. 배가 조금 전에 아프{*아서, 니까} 병원에 가자.

윤평현 (1989)은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32b)와 같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어(서)'는 비문으로 '-니까'는 정문으로 실현되는 것이 두 형태소 간의 원인과 이유라는 단순한 의미적 차이보다 실재 명령문과 청유문을 이루는 두 절간에는 시간적 차이가 없으며, 화자와 청자 모두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는 화용론적인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서)'가 두 절간의 어떤 결과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서)'가 결과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가정은 '-어(서)'가 결합되는 선행 술어에 시제나 상을 나타내 주는 어떤 요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다. (32a)의 선행절에는 시제나 상을 의미하는 어떤 요소도 없다. 그러나 선행절의 사건이 후행절의 사건을 선행한다는

구조 (11)과 (33b)와 관련해 Tang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1)에서 F는 강한 상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merge에 의해 점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numeration과정에서 '-de'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F는 하위절에 있는 동사를 끌어당긴다 (attract). (33b)에서 결과술어 'lei' (tired)는 강한 상자질을 점점하기 위해 F로 이동되고, 이 F가 지닌 형태론적 이유로 이 [lei+F]는 [qui+lei+F] (ride+tired+F)를 형성하기 위해 선행술어와 결합한다. 이 과정에서 F는 [+F,+L]자질을 지니므로 결과술어가 F를 경유해 선행술어로 이동할 경우 Chain-uniformity를 준수한다. (Yafei li (1990); Chomsky and Lasnik (1993); Fukui (1993); Sakai (1994))

하지만 Tang의 문제는 구조 (11)를 공유해야 할 (10c)와 (33b)의 상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사실이다. (10c)의 경우는 결과상을 지니나, (33b)는 완료상을 지닌다. 이는 중국어의 복합동사구문은 '-de' 결과구문과 다르게 복문이 아닌 단문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구나 주석 4)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의 '-de'결과구문에서 결과술어로 타동사가 나타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¹¹⁾ 하지만 중국어 복합구문에는 '타동사+타동사'구문뿐만 아니라 '타동사+자동사'구문도 존재한다. 중국어의 복합동사구문이 복문이 아니라 단문이라는 주장은 Zou (1994)에서도 발견된다.

(34) Lisi xia-shu-le qi.

Lisi play-lose-perf chess

'Lisi played a chess game and lost it.'

11) 이숙희 (1992)는 head-initial 언어인 영어나 Yorba어는 에서 선행술어가 구조적 핵이고 결과술어를 포함하나, head-final 언어인 한국어에는 결과술어가 구조적 핵이며 선행술어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제 결과술어가 전자는 자동사로 후자는 타동사로 실현되는 것과 일치한다. 즉 한국어 아래 예문에서 결과술어는 타동사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i) a. *철수가 쥐를 때려 죽었다.

b. 철수가 쥐를 때려 죽었다.

결국 이숙희 (1992)는 결과술어에서 타동사와 자동사가 실현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언어에 따른 head-parameter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고에서 일련동사구문식 분석을 따르지 않을 때 이는 (ia)가 비문이 되는 이유는 매개변형을 위배했다는 식의 설명보다는 한국어 '-어(서)'구문의 정확한 심층구조를 제시하는 식의 설명이 보다 설명력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어의 '-어(서)'구문에는 후행술어로 자동사가 위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ii) a. 강이 범람해 쏟아진다.

b. 그는 얼어 죽었다.

(35) Lisi wan-wang-le tade zhize.

Lisi play-forget-perf his duty

'Lisi played (in such a way that he forgot his duty.'(Zou K. (1994))

예문 (34)과 (35)에 대해 Zou (1994)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한다.

(34') [IP Lisi(i) [I' xia(j)-shu(k)-le [VP1 t(i) [V'1 t(j) [VP2 pro [V'2 t(k) qi]]]]]]

(35') [IP Lisi(i) [I' wan(j)-wang(k)-le [VP1 t(i) [VP2 pro [V'2 t(k) tade shize]]]]]

Zou (1994)는 복합동사구문에서 선행술어에 의해 야기된 결과가 후행술어에 나타난다는 결과구문의 성격을 인지하고 VP-shell구조와 VP-internal subject가설을 받아들인다. 즉 선행술어가 하위 VP를 보문으로 취하는 정형화된 구조 (canonically structurally realized)는 선행술어에 의해 지시된 사건이 후행술어에 의해 지시된 사건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의미적 복합체와 일치한다. (Hale and Keyser (1993)) 우선 (34)을 살펴보면 'shu' (lose)가 'xia' (play)와 결합되고 이 결합체는 INFL 'le'의 위치로 이동해 함께 결합된다. 여기서 VP안에 의미역을 받은 주어는 격을 spec-head일치 하에 격을 받기 위해 INFL의 spec으로 이동하고, pro는 자신을 c-command하는 closest nominal인 INFL의 spec에 위치한 주어에 의해 properly controlled 되고, 'qi' (chess)는 후행술어인 'shu' (lose)에게 의미역을 할당받고 이동되어 INFL에 위치한 'zhui-lei' (play-lose)에 의해 in-situ에서 격을 받는다. 또한 (35)을 살펴보면, 'wang' (forget)이 'wan' (play)으로 이동해 함께 결합하고, 이 결합체는 계속 INFL 'le'와 결합하기 위해 이동한다. 'Lisi'역시 VP안에서 의미역을 할당받고 격을 받으러 INFL의 spec자리로 이동하며, 'tade zhize' (his duty)는 후행술어 'wang' (forget)에게서 의미역을 할당받고 in-situ에서 이동한 'wan-wang' (play-forget)에게서 격을 받는다. pro는 자신을 성분통어하며 가장 근접한 명사구 'Lisi'에 의해 통제된다.

(34)과 (35)이 '어휘동사+어휘동사'구문이고 실제로 선행술어의 결과가 후행술어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구문들은 (10)의 구문들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나, 두 종류의 구문들을 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Tang (1997)과 다르

계 중국어 복합동사구문은 '-de' 결과구문과 동일한 구조가 아님을 주장한다. 반면, 한국어 '-어(서)'구문에서는 결과술어로 타동사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절의 주어과 목적어와 일치하지 않는 제3의 논항이 하위절의 주어가 될 수 있다. 예문 (34)은 선행술어와 후행술어가 모두 타동사인 경우이고, 예문 (35)은 선행술어가 자동사이고 후행술어가 타동사인 경우이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술어가 각각 타동사와 자동사일 때의 네 가지의 상황을 한국어 '-어(서)'구문에 적용시켜 보자. 우선 후행절에서 결과술어가 자동사일 때, 선행술어가 타동사인 (36)과 선행술어가 자동사인 (37)의 구조가 생성된다.

(36) 선행술어가 타동사이고 결과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한국어)

[VP Sub1 [V' [FP [XP pro1 [X' DP X]] F] V]

(37) 선행술어가 자동사이고 결과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한국어)

[VP Sub1 [V' [FP [XP pro1 X] F] V]

한국어의 예문을 (36), (37)의 구조를 통해 설명해 보자. 예문 (38)은 (36)의 경우이고, 예문 (39)은 (37)의 경우이다.

(38) 어머니1가 [pro1 딸을 때리시어] 슬퍼지셨다.

(39) 어머니1가 [pro1 뛰시어] 지치셨다.

예문 (38)과 (39)에서 pro는 하위절에 accessible SUBJECT가 없으므로 상위절을 통제영역으로 취하고 가장 근접한 명사구인 주절의 주어 '어머니'에 의해 통제되므로 GCT를 준수한다.

다음으로 후행절의 결과술어가 타동사이고 선행술어가 타동사일 때는 (40)로, 선행술어가 자동사일 때는 (41)로 실현된다.

(40) 선행술어가 타동사이고 결과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한국어)

[vP subj1 [v' [VP obj2 [V' [FP [XP pro1 [X' DP X]] F] V] v]

(41) 선행술어가 자동사이고 결과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한국어)

[vP subj1 [v' [VP [V' [FP [XP pro1 X] F] obj2 V] v]¹²⁾

(40)는 (38), (39), (41)과 다르게 GCT를 위반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40)의 예문이 (42)이고, (41)의 예문이 (43)이다.

(42) 철수는 쥐를 [pro1 pro2 때리]-어 죽였다.

(43) 그는 [pro 넘어지]-어 다리를 빼었다.

(43)에서 결과절 XP의 spec에 있는 pro는 자신의 통제영역인 주절에서 주절의 주어 '그'를 자신의 선행사로 취한다. 하지만 (42)의 선행술어와 결과술어가 동일한 주어와 목적어를 선택한다고 할 때, pro해석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42)에서 pro1이 가장 근접한 명사구인 주절의 목적어 '쥐'를 선행사로 선택할 수 있다. 다음 pro2의 해석을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여기서 한국어 결과구문이 중국어 예문과 다르게 FP가 존칭형태소 '시'의 범주인 AgrP를 자신의 보문으로 취한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36)와 (37)는 (44)과 (45)와 같은 구조를 보여야 하며, (40), (41)의 구조는 각각 (46), (47)의 구조를 보여야 한다. 실제로 한국어에서는 FP가 하위절 pro의 통제영역으로 설정된다.

(44) 선행술어가 타동사이고 결과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한국어)
[VP subj1 [V' [FP [AgrP [XP pro1 [X' DP X]] Agr] F] V]

(45) 선행술어가 자동사이고 결과술어가 자동사인 경우 (한국어)
[VP subj1 [V' [FP [AgrP [XP pro1 X] Arg] F] V]

(46) 선행술어가 타동사이고 결과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한국어)
[vP subj1 [v' [VP obj2 [V' [AgrP [FP [XP pro1 [X' DP3 X]] Agr] F] V] v]

(47) 선행술어가 자동사이고 결과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한국어)
[vP subj1 [v' [VP [V' [AgrP [FP [XP pro1 X] Agr] F] obj2 V] v]

12) 이 구조는 한국어의 branching mechanism을 위배한다. 즉 DP2와 V'의 위치가 바뀐다. 이 구조의 기저구조는 (i)이다. 하지만 목적어는 동사와 인접하려는 '동사 인접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소고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i)의 예문인 (ii)가 어색하게 들리지만 '다리를' 뒤에 휴지기를 둔다면 비문은 아닌 것 같다. '동사인접규칙'이 적용된 (iii)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린다.

(i) [vP DP1i [v'[VP DP2j [V'[FP [XP pro/PROi X] F] V] v]

(ii) ?그는 다리를 넘어져 빼었다.

(iii) 그는 넘어져 다리를 빼었다.

한국어의 결과구문의 하위절에 AgrP를 상정할 경우는 FP가 통제영역이 되어 pro는 상위절의 주어에 의해 arbitrary controlled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중국어 결과구문과 한국어 '-어(서)'구문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는 AgrP를 포함하고 있으며, 반면에 후자는 AgrP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술어와 후행술어가 모두 타동사일 경우인 (40)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48) 철수는 쥐를 [pro e 잡아] 죽였다.

(48)의 하위절에서 주어자리와 목적어자리에는 공범주가 위치한다. 하위절의 주어자리에는 pro를 가정하고 있으나, 하위절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공범주를 무엇으로 설정해야 할지는 문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일부의 학자들은 그 공범주가 pro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귀선 (1991); 이홍배 (1987); 양현권 (1991); 추미호 (1993); 김선희 (1993)) 나머지 다른 학자들은 그 공범주가 변항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용석 (1994); Huang (1984))¹³⁾ 우리는 한국어가 주어와 목적어자리에 pro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을 따르겠다.¹⁴⁾ 계속해서 3.2.2에서 선행술어와 후행술어

13) Huang (1984)은 중국어에 '주어/목적어의 불균형현상'이 있다는 전제 하에 (ia)에서와 같이 종속절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공범주가 주절의 주어물 지시할 수 없는 반면, (ib)에서와 같이 종속절의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공범주는 주절의 주어와 지시할 수 있으므로 종속절의 주어자리에 공대명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종속절의 주어자리에는 변항이 위치하고 공운용자에 의해 국부적 결속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i) a. Zhangsani shuo [ei/j bu renshi Lisik].

say not know

b. Zhangsani shuo [Lisik bu renshi ei].

say not know

즉, (ia)의 공범주는 주절의 Zhangsan를 지시하거나 어떤 사람 (somebody)를 지시할 수 있고, (ib)의 공범주는 어떤 사람 (somebody)만을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Choo (1993)과 Kim (1993)이 주장하고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종속절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공범주가 주절의 주어물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Huang의 주장에 대한 반례를 제시한다.

(ii) a. 철수_i가 [영희_j가 ei/k 위협했다]-고 말했다.

b. 철수_i가 [영희_j가 ei/k 매렸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어의 종속절 목적어 자리에 있는 공범주는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된다는 예에서 (공운용자에 의해 국부적 결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항이 아니라 공대명사이다.

가 모두 타동사인 구조 (40)에 포함된 pro의 해석을 살펴볼 것이다.

3.3 GCT수정

예문 (49), (50), (51)을 보면 모두가 '-어(서)'로 연결된 내포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52)에는 두 개의 pro가 존재하고, (50)에는 한 개의 pro, 마지막으로 (51)에는 pro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Huang의 GCT와 관련해 고찰할 예문은 (49)과 (50)이다.

(49) 철수가 쥐를 [pro1 pro2 잡아] 죽였다.

(50)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pro1 얼어] 죽었다.

(51) 그의 몸이 너무 불어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우선 (49)에서 두 개의 pro는 자신의 통제영역이 FP이다. 자신의 accessible SUBJECT가 있고 결속자가 FP안에 있기 때문이다. pro는 FP 내에서 선행사에 의해 결속되지 말아야 한다. 즉 pro2의 선행사가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pro1를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위절에 있는 '철수'와 '쥐'가 두 pro들의 가능한 선행사들이다.

한국어 '-어(서)'구문에서 하위절의 주어 pro는 항상 상위절의 주어를, 하위절의 목적어 pro는 항상 상위절의 목적어를 지시한다. 이는 (49)의 통제 관계를 설명해 준다. 결과적으로 pro1은 상위절의 주어 '철수'를 지시하고, pro2는 상위절의 목적어 '쥐'를 지시한다. 우리는 (50)과 관련해서 한국어의 pro는 주어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 이 pro의 통제자로서 주어가 목적어를 우선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음의 문장을 고려할 때 동사의 종류에 따라 pro의 통제관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52) a. 철수1가 영희j에게 [pro1/*2/*3 가졌다고] 말했다.

b. 철수1가 영희j에게 [e*1/2/*3 가라고] 말했다.

14) 결과술어 목적어에 NP-흔적은 불가능하다. 한국어의 결과구문의 하위절이 Agr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서 NP-흔적의 지배범주는 FP이다. 하지만 선행사로 유일한 가능성인 주어자리의 pro는 흔적을 결속할 수 없다.

c. 철수1가 영희2에게 [e*1/*2/1+2/*3 가자고] 말했다.

(52a)에서 '말하다'는 행위자인 '철수'가 목표인 '영희'에게 말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pro의 선행사는 '철수'로 해석된다. (52b)에서 '말하다'는 '명령하다'의 의미를 지니며 행위자인 '철수'가 대상인 '영희'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상황을 가리키고 pro는 자신의 선행사로 상위절의 목적어 '영희'를 취한다. 또한 (52c)의 '말하다'는 (52a)와 (52b)의 '말하다'와 다르게 '제안하다'의 의미를 지니며, '철수'가 '영희'에게 가자고 제안하라는 해석이 발생한다. (52c)에서 pro는 상위절의 주어 '철수'와 목적어 '영희'를 동시에 지시한다. (52)에 있는 '말하다'는 결국 어휘부에서 별도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동음이의어라 가정할 수 있다. 이는 하위절의 범형태소와 일치하는데, 조숙환(1991)은 범형태소 '-겠'는 [+SC, -OC]의 굴절자질을 가지고, 범형태소 '-라'는 [-SC, +OC]을 굴절자질을 가지며, '-자'는 [+SC, +OC]의 굴절자질을 갖는다. 하지만 결과구문인 (49-51)은 선행절의 동사가 FP를 선택하고 있으며, (52)의 선행절에 있는 동사들은 모두 CP를 선택한다. 이 사실은 '-어(서)' 구문이 실제로 CP를 보문으로 취하는 문장들과 구분되어져야 하며 결국 CP가 아닌 다른 보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어(서)'구문은 CP가 아니라 FP를 포함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XP의 SPEC에 있는 pro는 어떤 범형태소의 자질에 의해 통제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사실은 (49-51)의 예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한국어에서 평서문만이 사용되어진 문장에서 공대명사 뿐만 아니라 조용사 '자기'는 목적어보다 주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¹⁵⁾ 이때 하위인접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어 조용사 '자기'는 결속원리에 상관없이 그의 선행사를 취할 수 있다. 아래 (53)에서 조용사 '자기'는 CP와 NP를 횡단해 주절의 주어나 목적어와 공지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3) a. 창호i는 영희j를 [철수k가 자기i/*j/k를 가두었던] 방으로 데리고 갔다.

b. 나는 영희i를 [철수k가 자기i/k를 가두었던] 방으로 데리고 갔다.

15) 김용석(1992:281)은 한국어 조용사 '자기'는 특정절의 주어 위치에 그의 잠재적 선행사가 나타나면 그 절 속에서 주어가 아닌 주제, 목적어, 또는 명사구의 지정어(specifier)등을 그의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53a)의 경우에는 '자기'의 선행사가 주어인 '창호'와 '철수'가 될 수 있으나, (53b)의 경우는 '자기'의 선행사로 주어 '철수'와 목적어 '영희'가 될 수 있다. (53b)에서는 '영희'가 목적어로 나타나는 문장의 주어인 '나'는 '자기'의 잠재적인 선행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53)을 통해 한국어의 공범주들은 선행사로서 주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통제이론과 관련해서 한국어 '-어(서)'구문과 중국어 'de'구문을 비교해 볼 때, 중국어에서는 후행절의 주어자리에 pro를 설정하고 이것이 선행절의 주어나 목적어와 지시관계를 통해 이 공통적인 논항은 설명된다. 또 선행사와 pro의 관계가 조건 (13)와 (14)을 만족시키고 있다. 즉 pro는 자신의 통제구역에서 자신과 가장 근접한 논항을 선행사로 취한다. 하지만 한국어의 '-어(서)'구문에서는 Huang의 통제영역의 정의를 준수한다. 하지만 '-어(서)'구문은 중국어 '-de'구문과 다르게 FP 밑에 AgrP가 있으므로 해서 pro 자신과 accessible SUBJECT를 포함하는 최소의 최대투사범주는 상위절 전체가 아닌 하위절에 국한된다. 하지만 이 하위절에서 자신의 선행사를 가질 수 없다. pro는 결속이론에 따르면 지배범주에서 선행사에 의해 지배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행사의 해석에는 다분히 담화적이고 화용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Tsao (1977)는 pro의 해석원리와 관련해 영어나 이탈리아는 '문장지향성'이고, 한국어나 중국어는 '담화지향성'이라고 주장한다. 전자의 경우는 pro의 회복가능성이 통사론적인 맥락에서 설명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담화맥락에서 가능하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어(서)'구문에서 pro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해석원리가 필요하다.

(54) 영주어는 항상 주어를 지시하고 영목적어는 항상 목적어를 지시한다.

이 논문은 지면의 제약상 목적어 자리에 pro가 위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김용석 (1994)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논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서)'구문이 범형태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범형태소를 포함한 문장에서 pro의 해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는 선행절에 '-어(서)'가 첨가되어 결과를 후행절에 나타낸다. 이때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는 일종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어'유형의 경우에는 선행절이 원인 (혹은 계기)이 되고 후행절이 결과가 된다.

1장에서 '-어(서)'의 성격으로 제시했던 (3b)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어(서)'구문은 선행절에도 [+상태], [-상태]의 사건이 올 수 있고, 후행절에도 [+상태]와 [-상태]의 사건이 올 수 있다. 김양석(1994)의 지적에 따르면 Vendler(1967)의 상개념을 기초로 하여 한국어 동사들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 (55) a. 행위동사 (걷다, 뛰다, 달리다, 밀다, 만나다, 주다, 말하다...)
 b. 철수는 달렸다.
- (56) a. 완성동사 (만들다, 그리다, 짓다, 감추다, 칠하다, 접다, 쓰다...)
 b. 철수는 시 한 수를 썼다.
- (57) a. 성취동사 (도착하다, 깨닫다, 발견하다, 태어나다, 잃다, 다치다...)
 b. 철수는 서울역에 도착했다.
- (58) a. 상태동사 (가지다, 사랑하다, 알다, 좋아하다, 지다, 민다...)
 b. 철수는 인생을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어의 동사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어 결과구문의 상위절에 위치할 수 있는 동사의 종류는 행위동사와 완성동사이나, 한국어 결과구문의 상위절에 위치할 수 있는 동사의 종류는 행위동사, 완성동사 뿐만 아니라 성취동사, 상태동사도 가능하다. 아래 구문은 두 언어의 선행절이 성취동사와 상태동사를 취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 (59) a. *John froze dead.
 b. *John loves Mary happy.
- (60) a. John은 얼어죽었다.
 b. John은 Mary를 사랑해 행복해 졌다.

(59)의 경우는 각각 성취동사와 상태동사를 취한 예로 비문이 된다. 반면에 (60)은 선행동사가 각각 성취동사와 상태동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문이 된다. 이 사실은 한국어의 '-어'는 '가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각 범주의 동사들이 선행절에 첨가되어 그 선행절이 후행절에 연결되는 어떤 상을 (인과, 시간 한정, 계기등) 나타내는 표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실제로 내포절 '-어(서)'가 이끄는 절은 어휘적 의미와 결과상 의미를 동

시에 지니고 있는 FP이다. 이는 CP도 TP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어 FP와 다르게 한국어 FP는 AgrP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는 한국어 '-어(서)'구문의 하위절 자체가 Agr를 accessible SUBJECT로 가지므로 그 자체가 지배범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와 구분된다.

4. 결론

한국어 '-어(서)'는 어휘동사와 어휘동사를 여러 가지 의미로 연결시켜준다. 즉 인과적 의미, 한시적 의미, 계기적 의미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세 경우에 '-어(서)'는 '가지고'의 의미를 공유하다는 점에서 한 형태소로 분류된다. 이 '-어(서)'는 어휘적 의미를 가졌으나 형태적으로 강한 상가능자질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하위동사와 결합이 되고 이는 다시 상위동사로 이동해 함께 결합된다. 또한 한국어의 '어서'구문은 중국어의 결과구문과 다르게 하위절의 FP를 AgrP가 지배를 함으로써 차이를 나타낸다. 결국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하위절에 포함된 공대명사의 통제는 각각의 결과구문이 FP의 상위node로 AgrP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란 매개변항으로 설명이 된다.

참고문헌

- 김용석 (1994) "한국어의 공대명사 현상에 관하여," <생성문법연구> 4-1.
- 서정수 (1982). "연결어미 {고}와 {어서}." <언어와 언어학>, 8.
- 성기철 (1972). "어미 '고'와 '어'의 연구," <국어교육>, 18-20.
- 윤평현 (1989) 국어의 접속어미의 연구--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신문화사.
- 이정애 (1998) "'가지고'의 문법화 과정," <언어> 23-1.
- 최현배 (1961). '우리말본'. 세 번째 고침. 서울: 정음사
- Choo, M.-H. (1993) "Empty Pronoun in Korean Topic Constructions and Relative Clause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Kang, S.-Y. (1993)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their Implica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1, Hanshin Publishing Co.
- Kim, J.-B. (1993)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Resultative Construction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Dept. of Linguistics, Harvard

- University.
- Kim, S.-H. (1993) "On the Distribution and Interpretation of pro,"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Koopman, H. and D. Sportiche (1988) "Subject," ms.
- Sybesma, Rint (1997) Why Chinese verb-le is a Resultative Predicat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6.
- Lee, Sook-Hee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Sebba, M. (1987) *The Syntax of Serial Verbs*, Amsterdam, Benjamins.
- Simpson, Jane (1983) "Resultatives." In *Papers in Lexical-Functional Grammar*, ed. Lori Levin, Malka Rappaport, and Annie Zaenen, 143-157.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Sohn, Y., K., Hong, and Y. Hong (1994) "The Syntactic Analysis of Korean Two-verb Constructions," *Explorations in Generative Grammar*, Hankuk Publishing co., Seoul.
- Tang, Sze-Wing (1997) "The Parametric Approach to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in Chinese and English," *UCI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3, Edited by Luther Chen-Sheng Liu and Kazue Takeda,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330-800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5
 남서울대학교 영어과
 E-mail: taesung@nsu.ac.kr
 Fax: +82-417-582-2114